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hippensburg, Pennsylvania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학기(2017-2~2018-1)
귀국여부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위치는 펜실베니아 수도인 헤리스버그에서 차로 1시간떨어진곳이고, 뉴욕 4시간, 워싱턴D.C랑 필라델피아 2시간, 허쉬파크 1시간 반, 한인마트 1시간, 아미쉬 중심센터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친구들 많이 사귀어 두면 주변에 여행가기도 쉽습니다. 시골인만큼 교통수단이 별로 없고 장보러 갈 때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을 이용하고요, 시설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큰데 순천향대학교보다 작은 규모 이고요. 일단 도시전체적으로 깔끔한 시골 분위기입니다. 이학교에서 교환학생 왔던 친구들이 말하기를 Shippensburg는 미국의 신창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모르고 Public school 입니다. 학비를 싸게 해서 홍보하는 학교입니다. 시골인 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자란아이들이 많아 외부인에 대해 대화 주제를 찾지못하거나 어색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백인이 제일 많고 학교에서 최근에 아시아인과 흑인들에게 장학금 제공하며 홍보를 해서 좀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교프로그램이 많고, 동아리도 잘 되어있어 들어가면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친해지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p>

수업	<p>모든 과목이 교수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보통 난이도가 낮아요. 어떤 교수님은 미국친구들도 못 알아 들을 정도로 말씀을 빨리하십니다. 과목마다 다른 교수님들 있으니까 Ratemyprofessor 같은 교수님들 평가 사이트 가서서 한번 후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p> <p>중급회계- 회계 교수님은 어느 나라를 가도 지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제 학기동안 딱 한번 있었고. 시험 3번, 출석이랑 태도 성적반영 없었습니다. 수업 혼자 하시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학기내내 이과목에 엄청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D로 겨우 패스 했습니다.</p> <p>조직행동론- 두교수님이 번 갈아 큰 강당에서 수업하셨으며 매주 월요일 인터넷으로 퀴즈 풀었습니다. 그 퀴즈가 성적에 들어갔으며 그 퀴즈를 풀기위해 매주 30페이지 분량을 읽어야 했고 그게 연습이었어요. 그 퀴즈에서 거의 그대로 기말 고사 나왔습니다. 중간고사는 없었고 팀프로젝트 크게 있었어요. 팀 프로젝트 팀원끼리 평가한 거 점수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거의 모든 수업 연습 해야되요.</p> <p>소비자 행동론- 한국인 교수님 이었습니다. 난이도 엄청 쉬웠으며 거의 공부 안하고 만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팀 과제 있었고 팀 발표 과제 있었습니다. 교과서 없이 프린트로만 공부했습니다. 점수 후하게 주셨어요. 독일 친구가 배우는게 없다고 지루해 했어요.</p> <p>인적자원관리론- 말. 진짜 빨리합니다. 진짜로 빨리하고 목음도 많아서 애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기들도 말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고. 교수님도 자기가 말 빠른 것 알지만 수업하다 흥분하시면 엄청 빨라 지십니다. 짜잘한 과제 많았고 이 교수님이 다른 회사 인사과랑 아는 사람들이 많아 학생들 취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Vicky Taylor)</p> <p>예습 안해가면 모르는 단어 때문에 내용 전체 놓칠 수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보통 허가 받고 매일 휴대폰으로 강의 녹음했습니다. 거의 들을 일은 없지만 놓친 부분만 다시 듣는데 효과적입니다.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거 직접 교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절대로 모르십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오리엔테이션 진행이 되며 국제학생들을 위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일 친해 지기 쉽고 보통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필수이고, 담당자님 Mary, 진짜 착하십니다. 모든 질문 다 받아 주십니다. 또 학교에 튜터링 이라고 에세이나 특정 과목들 질문 받아주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노트북도 빌릴 수 있고 학교 컴퓨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눈 엄청 많이 와요. 눈만 좀 왔다 하면 학교 휴강바로 해요. 이메일 수업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거 빼면 우리나라 랑 기후 비슷합니다. 가끔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	다른 도심지역들에 비해 무지 안전한 편입니다. 도시가 거의 학생들 뿐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도 한두 명 밖에 본적이 없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약하는 친구들 거의 못 보고 술 마시고 취해서 싸우거나 2학기내내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들 시설이 엄청 안 좋은 곳도 있고 일단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요. 주방도 없기에 조리도 못합니다. 또, Thanks giving 같이 긴 휴무가 있으면 기숙사도 닫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지내지 못합니다. 학교 옆에 바로 붙어있는 숙소인 Stone ridge commons 에서 지냈고 시설 또한 엄청 깔끔하고 적당히 넓어서 좋았습니다. Stone ridge Commons, College Park commons, hot point commons, Bard town 이렇게 4아파트가 학교에 딱 붙어 있어 걸어서 2분정도 통학 거리입니다. 방4개에 룸메이트 3명인 큰방을 하려 했으나 보통 접수시작을 전학기 끝날 때 하기 때문에 이미 방2개 룸메이트 1명인 방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공간 정확하고. 집 별레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티는 아파트에서 많이 해요. 남녀 섞인 방도 있는데 아마 그건 개인 선택 따라 다른 것 같아요.</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학교 Meal Plan 계산하면 끼당 10불정도 나옵니다. 신청할거 개별로 사는 것 이랑 밀플랜으로 사는 거랑 가격차이 별로 없기 때문에도 있고 가끔 나가서 먹고 안 먹고 그런 것 때문에 최소크기의 밀 플랜 추천합니다. 뷔페 형식이고 기름진 음식들, 파스타, 피자, 멕시칸, 샐러드, 디저트 등종류도 많기 때문에 가격 비싼 거랑 비슷한 음식만 먹는다는 것 빼면 나쁘지 않습니다. 또 Meal plan 으로 사 먹는 식당이외에 학교내 식당들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식사는 식당마다 다른데 보통 10불정도 합니다. 건강하게 골고루 먹거나 한식을 해 먹었고 보통 주당 30불정도 들었습니다. 미국 음식을 가끔 먹는 것도 좋으나 보통 기름지고 야채 없고 건강 하지 않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부모님이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햄버거나 피자만 먹여서 그런 음식 아니면 안 먹는 친구들 좀 많습니다.</p>
<p>교통</p>	<p>도시내 학생 무료제공 셔틀이 매일 아침일찍부터 1시간간격으로 5시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다른 도시로 나가는 버스는 한 개입니다. 월마트에서 타며 오전 5시 6시 , 오후 4,5,6 시 이렇게 와요. 3불을 지불하고 1시간정도 가면 해리스버그에서 내립니다. 인터넷으로 3주전에 미리 예약하는게 제일 싸고 싼가격순으로 메가버스, 그레이하운드버스, 암트랙 기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메가버스는 운행시간이 제한이 많이되어있어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350,000원	. 편도 갈 때 700,000원, 올때 650,000 원
Fees	약3,710,000원	학기당 185만 3,802.41 원 x 2
보험료	국내 보험 가입	
숙소	약 5,500,000원	3분기 분할 1분기에 50만원 보증금 월 약60만원 x 9개월 계약
식비	일주일 평균 30\$	+ 외식
교통비	X	뉴욕 40~50\$, 필리 약 20\$ 워싱턴 20~30\$
책값	평균 권당 100\$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짐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시골지역이라 그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아 외부인에 대해 좀 어색해 하는게 있었어요. 처음에 동아리도 몇 개 들어가고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활동도 좀하고 했는데, 결국 첫 학기 끝날 때까지 유럽인들 과만 친해지고 미국인들 하고는 별로 못 친 했어요. 수업 적응 하는데도 좀 어려운 수업 하나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두번째 학기부터 적응 포기하고, 한국인, 순천향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들, 갈친구들, 한국에 관심있는 친구들 모두 모아서 매주 금요일에 한국 요리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돈을 조금 추가로 쓰기는 했으나 5~6명으로 시작했던 그룹이 친구의 친구 그리고 따로 친해진 미국인 친구들 등 초대하다 보니 24명씩되니까 중간부터 주마다 몇 명씩 정해서 요리 해오기로 하고 정하고, 저녁 먹고 파티하고. 그러다 보니 캠핑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벚꽃놀이도 가고 순천향, 쉬펜스버그 모든 학기 통틀어서 재미 있게 보내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취직하고 싶으면 이학교에서도 Job Fair 나 교수님들 인맥사용 기회가 많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생각이 많았고 남들이 우러러 말하듯 동경했는데, 다녀오고 난 후에 미국에 대한 동경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이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좀 덜 안전하고, 학비와 보험료는 비싸며, 자신의 나라의 역사도 나쁜 역사는 쏙 빼고 좋은 역사만 배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돈이 국민보다 우선시되는 나라라고 생각되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많은 걸 배웠지만,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워싱턴 D.C 벚꽃축제</p>	<p>Dinner Squad 마지막 사진 (캠퍼스)</p>
	
<p>Dinner squad</p>	<p>4월의 Shippensburg</p>
	
<p>Camping (동아리 통해서)</p>	<p>사진설명</p>

https://www.instagram.com/leng_z/ ←더많은 사진, 동영상